

플랫폼에 적합한 맞춤형 콘텐츠에 열정을 가지고 사업비 지원 요청을 한 업체가 대다수여서 심사에 세심함이 요구되었다.

실감콘텐츠 제작 기술 노하우도 충분히 축적돼 있어서 업체 나름의 VR/AR 제작 솔루션이 풍부해 보였다.

영상미디어시대에 걸맞게 실감미디어 발굴은 시대적 과제로 보인다.

시나리오에 부합하는 스토리텔링이 튼튼한 실감 콘텐츠 출현에 경의를 표하며 무궁한 영상물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본다.